

윤호중·박완주, 현안마다 온도차... 與 원내대표 오늘 선출

윤, 국민의힘 상임위 배분 재협상 요구 일축... 박, 법사위 외엔 긍정적 검찰·언론 개혁에도 이견 ...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법 처리엔 공감대

민주 원내대표 경선 마지막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박완주 의원은 선거를 하루 앞둔 15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마지막 토론회에서 격돌했다.

우선 윤 의원은 개혁과 협치 이슈를 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려면 개혁”이라며 “협치는 우리가 선택할 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종의 협치 계약이 있지 않은 한 협치는 불가능하다”며 “적당히 상임위를 나눠 가진 뒤 발목잡기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협치는 개혁을 이뤘기 위한 방법”이라며 협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21대 국회처럼) 한 정당이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경

우는 역대로 1~2번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목소리는 완전히 100%가 될 수 없고, 국회는 그런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이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장 배분 재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윤 의원은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야당에 양보한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협상 요구 자체를 일축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는 야당과의 협상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면서도 “법사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협의의 처리하는 게 긍정성이 있다”고 언급해 온도차를 보였다.

상반기 우선처리법안에 대해 두 후보는 ‘부동산 부당이익 몰수법’을 나란히 꼽았다.

윤 의원은 “정부에서 약 700명의 공직자에 대해

내사·수사하는 만큼 법적으로 뒷받침해서 부당이익을 전부 몰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LH 땅투기 사건을 깔끔하게 처리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무능력해지는 것”이라며 “관련 법률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 주제에 대해 윤 후보는 “검찰개혁 법안 관련 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단계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왜 2단계 검찰개혁이 필요한지 국민에게 설명하고 지지 속에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이미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법안이 금년 중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포털도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똑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박 의원은 “21대 국회 174석은 아직도 3년이나 남았다”며 속도 조절론을 내세웠다. 그는 “일정 기간동안 안정적인 1차 검찰개혁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한 윤호중 의원(오른쪽)과 박완주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합동토론회에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진행경과를 지켜보며 2차 검찰개혁 논의를 심도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개혁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등으로 실질적인 피해도 있겠지만 언론의 자유를 막는다는 프레임에 걸려 대선을 앞두고 전선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오광록 기자 kroh@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앞서 참석자들과 환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 대규모 인적 쇄신 ... 차기 총리 김부겸·박지원 물망

홍남기 경제부총리 유임 가다 노동 등 4개 부처 장관 교체 가능성 신임 정무수석, 이철희 전 의원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정세균 국무총리의 교체를 포함해 임기 마지막 대규모 인적 쇄신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곧바로 후임 총리 지명과 개각, 청와대 비서진 개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후임 총리로는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박지원 국정원장 발탁론도 여전히 있지만 가능성은 낮아진 상황이다. 여성 및 경제 전문가 기용 가능성도 전혀 없지는 않다.

정 총리가 여의도로 복귀한다면 민주당의 대선 구도에 상당한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

측이 나온다. 지난 보궐선거 참패로 여당 내에서 진문, 비문 간의 내부 균열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내 최다선이자 안정적 이미지의 정 총리가 중심을 잡는 정치력을 발휘한다면 차기 유력 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선 주자인 정 총리가 내부 결집을 주도하며 정권재창출을 위한 ‘용광로 경선’의 분위기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다만 코로나19의 4차 대유행 여부는 정 총리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편, 교체 가능성이 높았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에는 당간간 유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의 사퇴로 총리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만큼 홍 부총리가 이를 대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경제충격 회복이 문재인 정부의 지상과제라는 점에서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그 외의 경제부처에서는 다수의 장관이 정 총리와 동시에 자리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변장훈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는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의 승진 가능성에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청와대 비서진 개편도 맞물려 이뤄진다. 우선 사의를 꾸준히 밝혀온 최재성 정무수석의 교체가 확실하며, 후임으로는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여기에 이미 사표를 낸 김영식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과 함께 정책실은 중심으로 다수의 비서관이 물갈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이재명 26%·윤석열 23%·이낙연 8%

엠브레인퍼블릭 등 여론조사 기관 4곳,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대권 적합도를 두고 오차범위 내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2~14일 전국 유권자 1010 명에게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를 묻은 결과 이 지사를 뽑은 응답자가 26%, 윤 전 총장을 택한 응답자가 23%로 집계됐다.

이 지사의 지지율은 전주 조사와 비교해 2% 포인트 오른 반면, 윤 전 총장은 5% 포인트 올라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오차 범위 내로 좁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전주보다 2% 포인트 하락한 8%를 기록했다. 지난 4주 간 지지율 10%를 유지해왔지만 이번에 해당 조사 기준

처음 한 자릿수로 내려앉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를 지지한 이가 50%, 이 전 대표 지지자는 23%였다. 윤 전 총장의 경우 국민의 힘 지지층에서 52%의 지지를 받았다.

한편 이번 재보선이 국민의힘의 승리로 귀결된 이유와 관련,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잘못해서’라는 답이 61%로 가장 많았고, ‘전임 시장의 잘못에 대한 심판 때문’이 18%로 뒤를 이었다.

‘국민의힘이 좋고 잘해서’라는 응답은 7%로 나타났다.

이번 4개 기관 합동 전국지표조사(NBS)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서삼석, 민주당 5·2 전대 최고위원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남·무안·신안)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성과 성찰, 쇄신을 요구하는 당원과 국민 목소리에 응답하고 행동할 때”라며 5·2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출사표를 던졌다.

재선인 서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생산된 전기를 각 가정에 연결하는 전봇대처럼 국민과 당원의 의지를 국회와 정부, 당에 전달하는 ‘전봇대 최고위원’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총선때 받았던 압도적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선 낮은 자세로 국민에 다가서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정치적 논쟁에 주력하는 모습은 국민적 실망감을 주고 오만으로 비쳐지기도 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민주당을 소금처럼 국민에게 꼭 필

요한 정당으로 만들겠다”며 “일관성 있게 원칙을 지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3생”의 노력으로 민주당의 전환점을 만들겠다”며 “민생”을 위한 상임위원 당정협의체 정례화, 청년부터 노인까지 전 세대 간의 ‘공생’, 중앙과 지방의 ‘상생’ 등을 약속했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 때도 최고위원 경선에 나서려다 전북의 한병도 의원과 광주 양향자 의원이 호남을 기반으로 도전하자 출마를 접은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동구 대인동 183-2번지(한미쇼핑사거리)

대인동

싼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특, 타용도 변경 가능
-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중개환영. 010-3605-5000

수기동

제일OP

- ▶ 20층 중 8층
-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 매매 - 1억1000만원
- ▶ 20층 중 20층
- ▶ 계약 252㎡, 전용면적 142㎡
- ▶ 매매 - 3억3천만원

※ 사무실 전용, 코너, 주차 편리
문의. 010-3605-5000